

나성영락교회 2026 미션 엑스포

‘여기에서 땅끝까지’ 주제로
9월 6일-19일 2주간 진행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가 9월 6일(주일)부터 19일(토)까지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사명 재확립을 위해 ‘2026 YNC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땅끝까지(FROM HERE TO THE END)’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선교대회는 모든 성도가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선교적 삶을 시작해 이를 지역사회와 세계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17개국 39명의 파송 및 협력 선교사들과 12명의 자녀들이 참석해 선교 현황을 나누고, 성도들의 선교적 사명을 북돋게 된다.

첫째 주간(9/6-9/13)에 성도들은 선교적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을 예정이다. 요일별로는, 9월 6일(주일) ‘환영 및 개회’를 시작으로, 7일(월) ‘연합’, 8일(화) ‘교제’, 9일(수) ‘열정’, 10일(목) ‘회복’, 11일(금) ‘결단’, 12일(토) ‘위로’, 13일(주일) ‘비전 및 파송’을 주제로 진행된다.

둘째 주간(9/14-9/19)은 ‘진교 및 안식’을 주제로 치유와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YNC 선교대회 주강사로는 김바나바 목사(퀸즈한인교회)가 9일(수), 김한요 목사(얼바인베델교회)가 10일(목), 박은성 목사



9월 6일부터 19일까지 ‘2026 YNC 선교 엑스포’가 개최된다. © YNC

가 11일(금)가 참여한다.

특별강사로는 이상훈 교수(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총장), 김의진 교수(AEU 미션대학교 상담학), 이세영 교수(CPU 선교학 및 AI 설교연구소장)가 함께한다.

박은성 목사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라며 “가정과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라는 사실을 이번 엑스포를 통해 다시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성영락교회가 모든 성도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명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며 “이번 미션 엑스포가 ‘여기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셉 리 기자

‘美 한인 교계에 큰 영향’ 다니엘 뉴먼 교수 은퇴 감사예배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후학을 양성하며 미주 한인 교계에 큰 영향을 끼친 다니엘 뉴먼 교수의 은퇴 감사예배가 지난 23일 오후 5시 LA기쁨의교회(이희문 목사)에서 열렸다.

아칸소주페이엣빌 출신인 뉴먼 교수는 1985년부터 1989년까지 APU에서 종교학을 전공했으며, 재학 중 최우수 종교학 전공 학생으로 선정됐다. 졸업 후 한국으로 건너가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사역을 했으며, 1993년 7월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동서울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됐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뉴먼 교수는 풀러신학대학원 국제문화학부에서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석사 과정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박사 과정을 거쳐 ‘한국 교회와 선교를 위한 컨텍스트 신학’

로서의 우리’라는 논문으로 철학 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또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충현선교교회에서 EM 사역을 담당했으며, 2002년부터 2013년까지 LA 예본교회에서 담임으로 목회했다.

2004년 APU에서 교수 사역을 시작해 2006년 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 2010년 목회학 박사 과정 한국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았다. 2017년부터는 APU의 전체 목회학 박사 과정을 이끌었다. 교수와 디렉터, 멘토로 섬기며 수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양성해 온 그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이날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부 예배는 임금빈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상훈 목사가 찬양을 인도하고, 정중한 목사(남가주 믿음의교회)가 대표로 기도했다. 박준호 전도사가 뉴먼 교수의 사역을 소개했다.

주디 한 기자 → 4면에서 계속



다니엘 뉴먼 교수의 제자들과 LA예본교회 성도들은 뉴먼 교수와 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기독일보

메타, '청소년 SNS 중독' 소송 23조원 지급 합의

메타는 47개 주와 진행된 합의의 일환으로 자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어린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17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캘리포니아 소송에 포함되었던 29개 주의 소송을 해

결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나 제도 등 다른 주들도 포함되며, 이들 모두 메타 플랫폼이 젊은 사용자들에게 중독성을 유발하고 해당 연령층의 정신 건강 위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

장했다.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합의안 발표에 앞서 증언할 예정이며, 해당 합의안은 이본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승인 및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 12면에서 계속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
내 집을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믿고 선택하시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13-700-3239
yunyoungkwag@gmail.com
3030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DRE# 01935957 **곽윤영**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병크법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213-310-1800
Urban Like CSLB # 854389

교회·학교·커머셜 빌딩·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교회 및 비영리단체도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설치중인 교회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pc.org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세계등대교회
THE LIGHTHOUSE MISSION CHURCH
(213) 380-9931
https://lighthousemissionchurch.com/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및 교회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btssolardesign@gmail.com www.btssolardesign.com

“목회자의 또 다른 사역, 갈등을 풀어가는 일”

미주 피스메이커 목회자 세미나
한길교회서 9월 29일

최근 미국 목회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목회 사역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목회자들이 꼽은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 문화와 리더십, 조직 안에서의 관계 문제였다.

최근 미국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조사에서, 82%가 사역 중단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74%는 ‘교회 문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또 63%는 어려운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내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를 이끌어야 하는 리더이기도 하다. 하지만 목회 현장에서 요구되는 갈등 조정과 조직 관리에 대한 훈련은 충분하지



미주 피스메이커 목회자 세미나에 여삼열 목사와 이철 목사가 강사로 선다. ©기독교일보

않은 실정이다.

매주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뿐 아니라, 공동체 내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오해, 불만,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헤아리고,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가야 하는 책임까지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를 위해, ‘미주 피스메이커 목회자 세미나’가 9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3시까지 한길교회(고광선 목사)에서 열린다.

성경적 갈등 해결 원리를 목회 현장에 적용하고, 화해를 이끌어갈 목회자의 역량을 세우기 위해 열리는 이 세미나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직면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철 목사와 여삼열 목사(한국피스메이커 대표)가 강사로 나서 성경적 화해의 원리와 교회 분쟁 조정 및 갈등 해결의 실재를 다룬다. 목회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도 함께 살펴본다.

피스메이커 사역은 1982년 미국의 켄 산데 변호사를 중심으로, 크리스천들이 갈등에 성경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됐다. 한국피스메이커는 2002년 창립되어 교육과 훈련, 상담 및 중재 사역 등을 하고 있다.

이철 목사는 미국에서 16년간 이민목회를 했고, 이후 한국에서 남서울교회에서 16년간 사역한 뒤 은퇴했다. 그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피스메이커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목사는 “크리스천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만들어가

야 한다”고 말한다. 갈등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관계를 회복하여 공동체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피스메이커의 궁극적인 방향이다.

한편 일반 성도를 위한 ‘피스메이커 공개 세미나’는 9월 27일(주일) 오후 1시 30분 한길교회에서 진행되며, 여삼열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번 세미나는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방법보다, 갈등을 만났을 때 복음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회의 문화를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목회 현장에서 관계의 어려움과 공동체의 갈등을 마주하는 목회자들에게 성경적 갈등 해결의 원리를 바탕으로 목회 현장의 다양한 갈등 사례를 살펴본다.

이 세미나는 남가주교회협의회와 (사)한국피스메이커가 주관하고 한길교회가 후원한다.

주디 한 기자

살롬센터, 목회자 내 집 마련 세미나

9월 28일 나성 영락교회서
살롬센터 이지락 장로 강사로

목회자들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목회자 내 집 마련 세미나 2026’이 오는 9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 구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살롬센터(대표 이지락 장로)가 주최하며, 기독교일보가 특별 후원한다.

강사로 나서는 이지락 장로(살롬센터 대표)는 살롬센터를 통해 한인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연

방정부 공인 주택교육과 주택 구입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세미나는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에서 진행된다.

선착순 100명에게는 교육비 100달러가 면제된다. 등록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문의는 기독교일보(213-434-1170)로 하면 된다.



‘백세사역 전문지도자 과정’ 1기 수료식

CPU 평생교육원이 지난 2026년 8월 24일 ‘백세사역 전문지도자 과정’ 제1기 수료식을 통해 동문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번 제1기 백세 사역 전문 지도자 과정은 총 2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황성만 목사가 시편 18편 20-32절을 본문으로 “등불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기 위해 주어진 것이며, 여러분 앞에 놓인 백세 시대 시니어 사

역의 길은 닳은 길”이라며 “여러분은 오늘 그 길을 가장 먼저 걷는 사람들이며, 등불을 켜신 하나님이 앞서 걸으시고 동료들과 나란히 걷는 길”이라고 격려했다.

이성희 CPU 평생교육원장은 한국 여러 교회를 방문한 경험을 나누며, 시니어 사역의 필요성과 시니어를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사역의 주체로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루빈 CPU 부총장이

이상명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번 1기 수료생들은 미주 전역과 한국까지 폭넓게 분포해 시니어 사역의 관심과 중요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소연 전도사(어린이 사역 담당)는 “이 과정을 배우면서 굉장히 시야가 커지고 넓어졌다. 제가 있는 자리 어떤 사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사역까지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시간이었다”



F.I.A 워십 서부 찬양집회

예배사역팀 피아워십이 미 서부에서 집회를 연다.

9월 2일 남가주동신교회, 9월 4일 엘바인 온누리교회와 6일 씨드교회, 라스베가스비전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한다.

라스베가스 집회 이후에는 에브리데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를 거쳐 9월 13일 샌디에이고 갈보리장로교회 집회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피아워십의 리더인 이동선 목사는 무릎 십자인대 수술 후 뇌출혈 사고로 후각과 미각, 왼쪽 청각에 손상을 입은 바 있다.

사고 후 그는 자신의 고난과 회복을 간증하며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피아워십 서부 선교투어 일정
9/2(수) 7: 30 pm 남가주동신교회
9/4(금) 7: 30 pm 엘바인온누리교회
9/6(주일) 9:00 · 11:15 am 씨드교회
9/6(주일) 7: 30 pm 라스베가스비전교회
9/9(수) 7: 30 pm 에브리데이교회
9/11(금) 7: 30 pm 주님의영광교회
9/12(토) 6:00 pm 토랜스제일장로교회
9/13(주일) 6:00 pm 샌디에이고 갈보리장로교회
김민선 기자

라고 소감을 나눴다.

엘바인 베델한인교회 오성혜 권사(성가대 지휘)는 어르신들이 ‘우리는 유통기한 지난 사람들’이라며 자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다”며 “시니어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열정적으로 할 수 있

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새롭게 인식시켜 주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CPU 평생교육원은 「백세사역 전문지도자 과정」 2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2기 과정은 오는 9월 14일(월) 개강하며, 등록 마감은 9월 7일(일)이다. 웹사이트: cpu.edu

9월의 멘토-송정명 목사

“멘토와의 만남”

주제: 50년 사역여정, 감사와 아쉬움
— 내가 50대 목회자로 돌아간다면? —

● 일시: 2026년 9월 1일 (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성시화 운동본부 사무실
621 S. Virgil Ave. # 455 L.A., CA 90005

● 대상: 목회자 30명 초청합니다!

※사전 등록 필수 - 강태광 목사 (323) 578-7933

멘토: 송정명 목사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공동대표
미주 평안교회 원로 목사
전 월드미션 대학교 총장
전 미주 복음방송 사장

“모십니다!”
남가주에서 작은 교회를
행복하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다음모임 멘토님으로
모십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T. 323.578.7933
강태광 목사

주관: 월드쉐어 USA 바나바 사역팀 (강태광, 민경엽, 김은목, 이인규)
후원: 미주 침례신문,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Sharing Bread for Soul
World ShareUSA

(323)578-7933
3123 W. 8th St. #206, L. A., CA 90005

고 임동선 목사의 삶, 뮤지컬로 되살아난다

임동선 목사 서거 10주년 기념
극단 '시선' 클라라 신 감독
뮤지컬 도산 최원현 주연

故 임동선 목사의 삶이 뮤지컬 드라마를 통해 무대에 오른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설립자 故 임동선 목사 서거 10주년을 맞아 그의 자서전 '지구촌은 나의 목장'을 중심으로 한 선교 뮤지컬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임 목사의 일대기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계 선교에 헌신했던 그의 삶을 통해 오늘의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임성진 총장은 “올해가 故 임동선 목사님의 서거 10주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특히 선교 정신을 중심으로 공연을 준비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공연은 2023년 선보였던 오페라틱 오라토리오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당시에는 '지구촌은 나의 목장'을 중심으로 임 목사의 일대기를 음악과 영상으로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설립자로서의 정신과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선교에 대한 헌신을 더욱 강조한다.
임 총장은 “교계 전반적으로 선교가 위축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뮤지컬을 통해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임 목사님의 삶을 통해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는 것이 이번 공연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총장(좌)과 윤임상 교수(우). © 기독일보

배우 중심의 뮤지컬 드라마로
윤임상 교수는 이번 공연이 지난 공연과 달리 실제 배우들의 연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지난 공연에서는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진행했고 뮤지컬적인 요소는 최소화했다”며 “이번에는 배우들의 연기가 중심이 되며 음악이 이를 지원한다.”고 했다.
무대 전면은 배우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무대 뒤편에는 음악적인 요소를 배치한다. 조명과 영상도 부분적으로 활용해 임동선 목사의 삶과 선교 현장을 표현할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말씀을 품다, 말씀으로 서다, 말씀을 나누다'라는 흐름으로 전개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온 한 사람이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위에 서고, 결국 그 말씀을 다음 세대와 열방에 전하는 과정이 드라마로 펼쳐진다.

선교 축하 음악회와 장학금 수여식
전체 프로그램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1부 선교 축하 음악회, 2부 장학금 전달식, 3부 선교 뮤지컬 드라마로 구성된다.
1부에는 월드미션대학교 졸업생들이 참여해 약 35분 동안 음악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된다.
이번 장학금에는 40개가 넘는 교회와 단체가 지원했으며, 각 단체에서 선별된 한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임 총장은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고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를 자신의 목장으로 삼아 선교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선교지에서 아낌없이 나눠”

임동선 목사는 세계 여러 나라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했다.
그는 유럽과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중국, 쿠바 등 여러 나라를 다녔다. 1987년에는 세계복음선교연합회(WEMA)를 세워 선교사와 교회를 연결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사역에도 힘썼다.
선교 현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임 총장은 “쿠바에서 교인들에게 집세를 주다가 경찰이 들이닥쳐 도망친 일도 있었고, 중국에서는 지하교회를 다니다 경찰에 붙잡혀 열몇 시간 동안 취조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에서는 신학교를 세웠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선교비를 모두 내어주고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준 일도 있었다.
윤 교수는 “선교지에 가면 입던

내복까지 내어주실 정도였고, 돈을 보내주시면서 모든 것을 선교사들에게 주려고 하셨다”고 회고했다.
임 목사는 2016년에도 남미 4개국을 방문해 선교 사역을 지원하며 마지막까지 선교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다.

LA 뮤지컬 배우들과 월드미션대 졸업생 참여
이번 공연에는 LA 지역에서 뮤지컬 공연을 이끌어 온 '시선'이 참여한다. 도산 안창호를 소재로 한 공연 등을 통해 한인사회에서 뮤지컬 붐을 일으킨 단체다.
대표 클라라 김이 전체 프로덕션을 맡고, 뮤지컬 배우 최원현 씨가 연출과 주연을 담당한다. 도산 안창호 공연에 참여했던 배우들도 다수 참여하며, 월드미션대학교 졸업생들도 배우로 함께한다.
공연은 19일 오후 6시 새누리교회에서 열리며, 뮤지컬 드라마는 약 1시간 30분, 전체 프로그램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임성진 총장은 “미주 사회가 다시 선교를 위해 힘을 댄다면 한다”며 “그것이 임동선 목사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 선교”라며 “학교도 신학뿐 아니라 라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역자들이 일어나 선교를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설립자의 정신이다. 이번 공연이 미주에 선교의 열정을 되살리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AI 시대의 그리스도인’ 유스 코스타 개최

중·고등학생을 위한 유스 코스타(Youth KOSTA)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바이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AI 시대 영적 지능(Spiritual Intelligence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위십, 영화 특수효과, 인공지능·검색 기술, 디자인, 항공, 법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신앙과 진로, 소명의 의미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강사로서는 DK Kim 목사(Mariners Church 위십 리더), Common Gathering(태피스트리 LA 위십 팀), 스티븐 오 감독(영화 <미션 임



파서블), <캐리비안의 해적>,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등 특수효과 담당), Daniel Rhee(Living Water Church, TX KOSTA), Daniel Kang(Head of Organic & Agentic Search, Expedia Group), Minnie Choi(Senior Director, Product Design, Meta), Logan

Kim(텔타 항공 파일럿), Daniel Lim 변호사(IN2 온누리교회 목사), Jae Hyun Shim 의사 등이 참여한다.
DK Kim 목사는 K팝 스타가 되는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은사를 통해 사람들이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

재를 체험하도록 돕고 있다.
항공 촬영 회사인 XM2의 CEO이자 공동 창립자인 스티븐 오 감독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숨막히는 장면들을 만들어 냈다. 그는 촬영 한 번에 몇 억이 드는 압박감이 높은 촬영 현장을 지휘하면서, 촬영 신호를 보내기 전 항상 “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고 간증했다.
1980년대 미국 유학생들의 신앙운동으로 시작된 코스타(Korean Diaspora For the Kingdom of God)는 교단, 교파, 단체의 벽을 넘어 현재 1.5세와 2세대, 이민자들과 목회자 및 선교사들이 함께 하는 연합사역으로, 현재 26개국에서 약 2만 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다.
등록은 코스타 열바이온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주디 한 기자 <https://kostairvine.org/>
일정: 9/18(금)-9/20(주일)
장소: 열바이온누리교회

2026 미주 피스메이커 목회자 세미나

Peacemaker Pastors' Seminar in North America

“성경적 갈등 해결 원리로 분쟁없는 건강한 이민교회를 세운다”

강사



이철 목사

한국 피스메이커 이사장
前 남서울교회 담임
前 에스라성경대학원 총장



여삼열 목사

한국 피스메이커 대표
한국 기독교 화해 중재원 조정위원
前 CBMC 한국기독교실업인회 본부장

일시
장소
대상
등록
문의

9월 29일(화) 9:30am-3:00pm
한길교회 The Way Church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목회자 및 선교사 등 교회 리더십
무료, QR 코드 스캔 후 등록
323.735.0200 | 678.499.8160



등록바로가기

사전 등록 50분 한정
-점심식사 제공
-화평하게 하는 자(켄 산데) 서적 증정

피스메이커 공개 세미나

일시 9월 27일(주일)1:30pm | 강사 여삼열 목사
장소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대상 성경적 갈등 해결의 원리를 배우기 원하는 교회 리더 및 모든 관심자
등록 무료

주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한국 피스메이커

KOREAN PEACEMAKER MINISTRIES
www.kpeacemaker.org

후원

한길교회
The Way Church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9)

“주님을 따르는 삶… 나의 것을 내려놓고 의지해야”

동부장로교회 새벽예배 고동진 목사 “제자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 강조”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당시 길선주 목사가 시작한 이래,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기독일보는 지난 22일 동부장로교회 새벽예배에 참석해 설교문을 기재한다.

22일 동부장로교회(담임 김정오 목사) 새벽예배에서 EM 및 선교담당 고동진 목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라고 강조했다.

고 목사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설명하며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자 근심하며 돌아갔다”며 “주님을 따르는 것은 먼저 주님을 따

르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라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목사는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며 “온전한 주님의 통치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고 목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함께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삭개오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고 목사는 “놀라운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했다”며 “수많은 무리 가운데 서서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주께서 나의 집에 있겠다 하신다”고 했다.

이어 “무화과나무에 오른 믿음 조차, 나의 부끄러운 믿음도 보시고 은혜로 만나 주시는구나”라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 목사는 부자 청년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내려

놓지 못했던 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려놓았으며, 예수님의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말씀과 “나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는 말씀을 언급했다.

그는 “부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신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며 “나 같은 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되는 것이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라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미국인으로서는 한국인이 되어... 한인 학생들 섬겨주셨다”

→ 1면 기사 <다니엘 뉴먼 교수 은퇴 감사예배>에 이어서

이어서, 임금빈 목사가 요한복음 13장 34~35절을 봉독하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또 한국 학생들을 지도교수로 섬겼던 뉴먼 교수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씀을 전했다.

뉴먼 교수는 설교에 앞서, 제자들과 동역자를 향해 “저는 여러분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이어서, “사랑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명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었다.

그는 ‘순종’이라는 단어, ‘순종하라’, ‘지키라’라는 명령에 대해 어떤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질문하며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보통은 ‘반감’이나, ‘부담감’이 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어떻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부담이나 억지가 아닌,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행위로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조차 제대



다니엘 뉴먼 교수와 가족들이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졸업생들 및 제자들과 은퇴 감사예배 후 기념 사진을 찍었다. © 기독일보

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철저히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며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고 권면했다.

또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룬 한국의 위계질서를 언급

하며, 세상은 위계질서에 따라 행동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급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교에 이어 ‘아름다운 헌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영상 축사가 상영됐다.

강준민 목사는 뉴먼 교수의 한국과 한인 교회를 향한 사랑을 회고하며 “교수님은 ‘우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셨다. 교수님의 한국

에 대한 사랑과 한국 교회, 이민 교회를 향한 사랑이 기억에 남아 있다”고 증거했다.

민종기 목사는 1990년대 초반 중현선교회에서 동역했던 시간을 되돌아 보며 뉴먼 교수를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지도자이자 동역자”라고 표현했다.

이어 뉴먼 교수가 섬김의 리더십을 지닌 ‘서번트(Servant)’, ‘서포터(Supporter)’, ‘세이지(Sage·

현인)’와 같은 지도자였으며 그의 사역에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정금섭 교수는 “아시아 학생들이 불필요한 인종차별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은혜에 깊이 빚졌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영상 축사 후에는 류창식 목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뉴먼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류 목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과 낮아짐으로 대하셨고, 친구 같은 분이셨다”며 뉴먼 교수를 회고했다. 또한 “미국인으로서는 한국인이 되어 한인 학생들과 같은 정체성을 품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섬겨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뉴먼 교수는 참석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찬양하고」를 함께 불렀다. 이후 광고와 이희문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에서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함께 식사하며 뉴먼 교수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돌아보고 감사와 축복을 나눴다.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홀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네이션해 주세요.)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JAY PARK 종합보험

40년 보험 전문인
JAY PARK이 자신있게 소개하는

자동차, 사업체, 메디케어 보험

CA ins. Lic#OC84280

(213) 380-9801

2975 Wilshire Blvd., Suite 506
Los Angeles, CA 90010



창립 9주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40)

감사예배 및 임직식

2026년 9월 6일 오전 10시 30분

임직자

장로추대	박창래 신조웅
안수집사임직	김인식 심요한 이평화
권사임직	조길희
권사추대	노정림 신옥례 티나백 김희심 고재숙 박정숙 임정은 마재월 박미옥



이순환 담임목사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예배 10:30am 수요일예배 7:00pm 새벽기도회 (화-토) 5:30am

주소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연락처 213-505-3838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강신욱 M.D / 김남주 N.P / 김민성 M.D / 김영래 M.D / 김인자 M.D / 김진세 M.D / 김학준 M.D
대니얼 김 M.D / 리사 김 M.D / 박수영 M.D / 박윤석 M.D / 성동진 M.D / 손동수 M.D / 송홍우 D.O / 신예용 D.O
안우성 M.D / 양진홍 M.D / 윤은주 M.D / 이광혁 M.D / 이용태 M.D / 이익준 M.D / 이현녕 M.D / 이현주 M.D
임대순 M.D / 임승하 M.D / 정만길 M.D / 제인 공 M.D / 조아라 M.D / 조이스 리 M.D / 찰스 김 M.D
프랭크 최 D.O / 허준 M.D / 헬렌 강 M.D / 황인용 M.D

당신의 주치의[♡] 당신의 이웃입니다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3098

“AI는 설교의 조력자, 최종 판단과 책임은 목회자에게”

AI혁신목회연구소(대표 김에스라)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목회 현장의 설교 준비와 성경 연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6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설교를 위한 AI 기술 이해: Logos와 히브리어’를 주제로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 Zoom을 통해 진행됐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목회 현장에서도 설교 준비와 성경 연구 과정에 AI를 활용하려는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들이 AI를 단순한 정보 검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설교 준비와 본문 연구 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체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설교 준비 방법을 비롯해 로고스(Logos) 성경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성경 연구, AI를 접목한 히브리어 연구법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를 통해 AI혁신목회연구소는 목회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AI 환경을 이해하고, 설교와 성경 연구에서 AI가 제공하는 기술적 도움을 활용하면서도 신학적·목회적 판단의 주체는 설교자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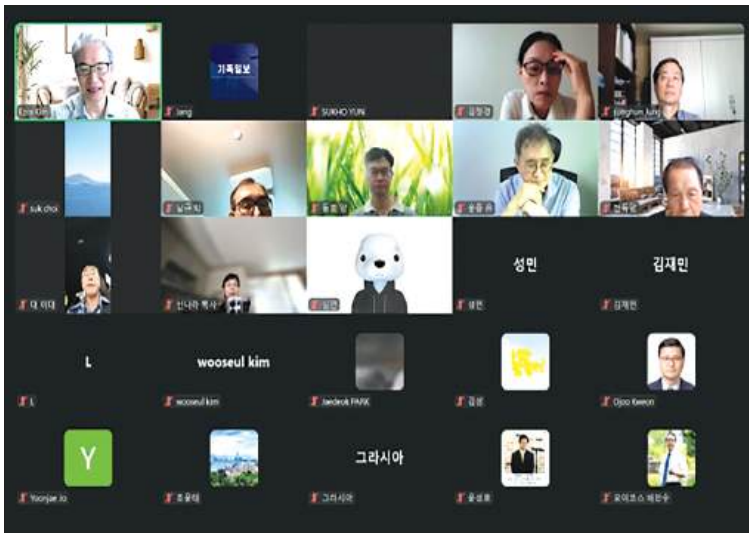
◇ “AI는 탁월한 종이지만 무오한 선생은 아니다”

이날 세미나는 AI혁신목회연구소 대표 김에스라 박사를 비롯해 김한원 교수(총신대·하늘샘교회 담임), 유윤종 교수(평택대 피어선 신학전문대학원)가 강사로 참여해 각각 AI 기술과 성경 연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에스라 박사는 ‘주해부터 설교까지, 어떤 AI를 어떻게 사용할까’를 주제로 생성형 AI를 설교 준비 과정에 적용하는 방법과 성경 본문 연구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소개했다.

김 박사는 설교자가 AI를 활용할 때 기술 자체에 의존하기보다 먼저 말씀과 기도, 묵상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탁월한 종이지만, 결코 무오한 선생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AI를 사용하는 설교자가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원칙은 AI를 사용하기 전에 기도와 성경 충만을 우선하고, 본문의 메시지가 구체화될 때까지 깊이 묵상하며, AI를 설교 준비를 돕는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AI가 제공하는



AI혁신목회연구소 제6차 세미나 참석자 사진. ©AI혁신목회연구소 줌 영상 캡처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한 뒤 사용해야 하며, 설교자 자신이 먼저 말씀을 실천한 후 강단에서 선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목회자가 활용할 수 있는 AI 도구를 크게 두 갈래로 구분했다. 하나는 다양한 질문에 답하고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대화형 AI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 연구에 특화된 전문 도구다.

대화형 AI 플랫폼으로는 ChatGPT(OpenAI), Claude(Anthropic), Gemini(Google), NotebookLM(Google), Perplexity 등이 소개됐다. 성경 연구에 특화된 도구로는 Logos Bible Software, Accordance, Olive Tree Bible Study, Blue Letter Bible, e-Sword 등이 제시됐다.

◇ “AI 자료는 반드시 검증”

김에스라 박사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목회자의 분별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AI 도구가 정교해지고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목회자가 직접 지켜야 할 영역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먼저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석서의 이름이나 페이지를 그릴듯하게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을 주의해야 한다”며 “AI가 제시한 인용이나 서지정보는 그대로 신뢰하지 말고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의도 강조했다. 특히 “목회 과정에서 심방이나 상담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AI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며, 목회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더라도 성도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는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다.

신학적 분별 역시 AI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으로 제시됐다. 김 박사는 “AI가 특정 교단의 신앙고백

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AI가 제시하는 신학적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서는 안 되며, 개혁주의적 관점에서의 신학적 분별은 목회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문제도 언급됐다. 그는 “AI가 문장을 다듬거나 새로운 형태로 작성해 준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사실상 그대로 옮긴 것이라면 표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설교 작성에서도 저작권과 표절에 대한 목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AI는 강해의 조력자이지, 성령의 대체물이 아니”라며 “도구는 손을 도울 뿐, 무릎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했다.

◇ 프롬프트 6요소부터 설교 준비 5단계까지… AI 활용법 소개

김에스라 박사는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AI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질문을 구성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여섯 가지 요소로 역할(Role), 과업(Task), 맥락(Context), 어조(Tone), 문체·형식(Style), 제약(Constraints)을 소개했다.

김 박사는 “각 요소는 AI에게 무엇을 요청할 것인지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로 설명된다”며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하듯 질문을 입력하는 것과 목적과 맥락을 분명하게 제시해 AI를 활용하는 것은 결과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와 함께 설교용 AI 세팅 방법과 QT 프롬프트 시연도 진행됐다. AI가 자주 오류를 일으키는 영역

으로는 통계 수치, 날짜, 원어, 인용 및 서지정보, 최신정보 등이 제시됐다. 김 박사는 “이 같은 정보는 AI가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I를 활용한 설교 준비 과정은 주해 단계에서 시작해 설교 아웃라인 작성, 설교문 작성, 문장과 내용 다듬기, 최종 검증 단계로 이어지는 5단계로 제시됐다.

김 박사는 단계별로 적합한 AI 활용 방법도 설명했다. 그는 “주해는 NotebookLM(근거에 묶기), 아웃라인·설교문·다듬기·검증은 Claude Project, ChatGPT Project, Gemini Gems가 주력”이라고 소개했다.

성경 주해를 위한 기본적인 연구 영역으로는 문법적 해석, 문학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등 네 가지 요소가 제시됐다.

김 박사는 “문법적 해석에서는 어휘 연구와 구문 분석, 담화 분석 등을 살펴보고, 문학적 해석에서는 플롯과 배경, 인물, 관점, 반복, 구조, 문맥, 수사 기법, 저자 의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역사적 해석에서는 문화와 지리, 정치, 사회, 종교적 배경을 비롯해 저자와 연대, 수신자, 기록 목적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학적 해석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성, 모형론, 약속과 성취, 구속사적 위치, 언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I는 부지런한 조사 보조자로 삼되, 최종 검증자의 자리는 반드시 목회자 자신이 지켜야 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분별하는 지혜”라고 전했다.

◇ “로고스 1층부터 3층까지”… AI 접목한 성경 연구 방법 제시

김한원 교수는 ‘정확하고 편리한 로고스 AI 성경연구’를 주제로 로고스 성경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과 AI를 접목한 성경 연구 방법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로고스 성경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성경 어휘와 본문을 연구하는 기본 단계부터 AI와 자료를 결합해 연구하는 방법, 나아가 개인의 설교 준비와 자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를 ‘1층, 2층, 3층’에 비유하며 “오늘은 1층을 제대로, 2층을 실험로, 3층을 맛만 보시게 된다”라고 말했다.

1층에서는 로고스 자체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강조했다. 성경 어휘 연구와 성경 본문 연구를 통해 기본적인 성경 연구 역량을 확보하는 단계다. 2층에서는 로고스와 AI를 결합해 자료를 AI에 붙여서 질문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3층은 개인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로, 설교 관리와 자료 연동, 파일 추출 등의 방법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AI가 자료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데 유용하지만 목회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자동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AI는 남의 말을 요약해 준다. 자료를 붙이면 본문을 읽어 준다. AI가 모르는 것은 우리 교회”라며 “주석은 세계 어디서나 같다. 회중은 다르다. 이 한 줄을 넣지 않으면, 어느 교회에서나 할 수 있는 설교가 나온다”고 했다.

특히 ‘설교 준비 과정에서 AI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자료에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의 상황과 회중의 특성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명설교의 뼈대를 내 본문에 엮기’라는 방식으로 설교문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방법도 소개됐다. 그는 “기존의 설교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자신의 본문 연구와 설교 준비에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강의를 통해 “묻고 → 시키고 → 판단하고… 마지막 자리는 설교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요한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오,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영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김

■ 발 행 인 : 이인규

■ 편집국장 : 맹창현

■ 고문변호사 : 정찬용

■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랜트, 시애틀, 텍사스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이 사 장 : 폴 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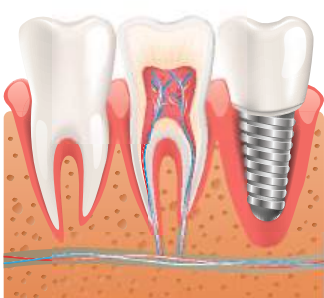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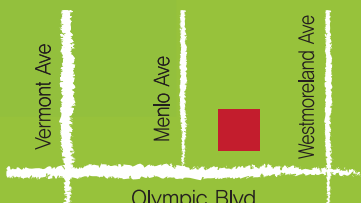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LA장로교회

창립 4주년

감사예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LA 장로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창립 4주년 감사예배와 임직·임명식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시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한현중 담임목사

2026년 8월 30일 (주일) 오전 10:30
LA 장로교회 :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문의 : 남형웅 장로 (661-860-6226)

시무권사 임직



김경희



김그레이스



김성순



김패티



안정희

서리집사 임명



김비키



서인순

英 스포츠계 ‘생물학적 성’ 기준 확산, 여성 종목 정책 개정

영국 스포츠계에서 여성 종목 참가 자격을 자기 성별 인식(self-identification)이 아닌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hristian Today)가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웨일스축구협회(Football Association of Wales·FAW)와 왕립요트협회(Royal Yachting Association·RYA)는 선수들의 경기 참가 자격을 생물학적 성에 따라 구분하도록 정책을 수정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지난해 영국 대법원이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상 ‘남성’과 ‘여성’의 의미를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스포츠계에서도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법률 옹호 단체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lliance Defending Freedom·ADF)은 10개 스포츠 단체에 서한을 보내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종목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이 현행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웨일스축구협회와 왕립요트협회는 이후 정책 개정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단체들도



©Nicolas Hoizey/ Unsplash.com

관련 규정을 검토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ADF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두 단체의 조치는 개별 종목 차원의 변화라기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여성 스포츠의 참가 기준을 생물학적 성에 맞춰 정비하려는 영국 스포츠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ADF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지난해 영국 대법원이 여성 권리단체

‘포 위민 스코틀랜드(For Women Scotland)’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내린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2010년 평등법에서 사용되는 ‘남성’과 ‘여성’, ‘성(sex)’의 의미를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DF 인터내셔널 런던사무소의 법률·정책 담당인 로버트 클라크(Robert Clarke)는 “법적으로 성

(sex)의 정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영국과 다른 지역에서 남성이 여성 부문에 진입하도록 허용할 경우 여성과 소녀들의 기회가 침해되고 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영국 최고 법원이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평등인권위원회(Equalities and Human Rights Commission·EHRC) 지침도 단일 성별 공간과 서비스,

스포츠 부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스포츠 단체들은 정책이 이념이 아닌 생물학을 반영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클라크는 아직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스포츠 단체들이 “상당한 법적 책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전 올림픽 수영 선수이자 현 보수당 상원의원인 샤런 데이비스(Sharron Davies)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데이비스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여성과 소녀들이 유해한 상황에 노출되고 불공정한 경기 환경에 놓이는 한 계속 손해를 보거나 아예 참가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대법원 판결, EHRC 실무 규범(Code of Practice)은 매우 명확하다”며 “행동하지 않는 데 대한 변명이나 여성을 보호하고 법을 준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모호한 정책에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미셀 기자

한교총, 방문한 김민석 대표에게 ‘해외 선교비 과세 우려’ 전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25일 (사)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기감 감독회장)를 예방하고 민생과 사회 현안, 한국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교총이 이날 보도했다.

김정석 대표회장은 최근 당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삶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김 대표의 노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귀한 책임을 맡은 김 대표를 위해서도 한교총과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겠다. 김 대표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공동대표회장 김동기 목사(예장백석 총회장)도 김민석 대표의 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와 한교총 김정석 대표회장이 환담하고 있다. ©한교총

임을 축하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총리 재임 당시 스스로를 ‘새벽총리’라고 불렀던 것을 언급하며 “이제는 ‘새벽 당대표’라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

벽마다 나라를 위해 드리는 한국교회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국민의 뜻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며 국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무총리 재임 당시 교계와 함께 추진했던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활동, 저출생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교계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청년과 주거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지혜를 모으겠다며 “앞으로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국정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의견도 편하게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는 최근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 선교비 과세 문제를 비롯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군종장교 제도 등 한국교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한교총은 전했다.

한교총은 해외 선교비 과세와 관련해 일부 종교단체의 문제로 마련된 제도가 정상적인 해외 선교와 구호·교회 개척 등의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종교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김 대표 “관계 부처 및 당 차원서 살펴보고 논의”

요청했다.

또한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과, 군종병과의 위상과 지휘체계 강화를 위해 군종장교의 장성 보직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 같은 교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특히 해외 선교비 과세 문제를 포함한 관련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당 차원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이날 환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변인 조계원 의원이 배석하였으며, 한교총에서는 김철훈 사무총장, 정찬수 법인사무총장, 심재성 목사(기감 행정기획실장), 장현준 목사(예장백석 총무)가 배석했다.

김진영 기자

이래도 생명보험과 개인은퇴연금을 아는 사람에게 대강 가입하시겠습니까?

데이터로 보는 캘리포니아 보험

-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생명보험과 개인은퇴연금 회사(캐리어)는**
- 약 270~300여 개 사
- ✓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수**
- 생명보험 : 5~15개
- 개인은퇴연금 : 3~10개
- ✓ **한 상품당 선택할 수 있는 라이더(특약)의 수**
- 생명보험 : 보통 5~15개
- 개인은퇴연금 : 보통 3~8개
- ✓ **평균적으로 동시에 선택하는 라이더 수**
- 2~5개 정도
- ✓ **여러분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 할 수 있는 확률은?**
- “수십만 대 일 ~ 수천만 대 일”
- 캘리포니아보험국 ‘2024 MARKET SHARE REPORT’ -

“보험 선택은 수백만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기준으로 1~3개로 압축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상품에 대해 알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gent 신정호 (Lic# 4462712)

- Cell : 949-522-0778
- jeongho.shin@bridgeoneins.com
- Office : 562-222-8877
- Fax : 714-636-0023
- 6767 Katella Ave, Cypress, CA 90630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유튜브 채널
새비이코노미



에이전트 모집중 재정 전문가로 함께 성장할 인재를 찾습니다.

시리아 새 정부 기독교인 무차별 구금 및 살해 종교 탄압 수위 최고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시리아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구금과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8월 20일 보도했다. 2024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진 이후 과거 알카에다 소속이었던 아흐메드 알사라가 이끄는 시리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국제 인권 단체들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 이슬람국가(IS)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주민들을 지켜냈던 기독교인 영웅마저 아무런 혐의 없이 감옥에 갇히는 등 시리아 내 종교 탄압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시리아 정교회 신자이자 사다드 지역의 전직 시장이었던 52세의 술레이만 칼릴이 지난 2025년 2월 8일 시리아 새 정부에 의해 전격 체포된 후 현재까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는 2015년 당시 끔찍한 학살을 자행하던 이슬람국가의 위협에 맞서 최전선에서 마을을 방어하며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낸 인물이다. 하지만 새롭게 권력을 쥐게 된 시리아 정부는 그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불법 구금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변호인 접견은 물론 가족과의 면회조차 철저히 차단된 상태로 옥중에 방치되어 그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우려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에 기독교연대(CSI)와 기독교인방어(IDC) 등 국제 인권 단체들과 샘 브라운 백 전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 등은 톰 배럭 시리아 이라크 담당 미국 대통령 특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며 긴급한 개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칼릴 전 시장이 과거 극단주의 세력에 맞서 싸운 공로는 모든 시리아인과 특히 반테러 연합에 합류한 새 정부로부터 찬사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시리아 당국에 압력을 가해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이끌어내거나 최소한의 법적 권리와 의료 지원이라도 보장받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배럭 특사 측은 서한을 접수한 뒤 시리아 내 기독교인 보호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칼릴 전 시장의 비극은 병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시리아 전역에서 무고한 기독교인들이 자의적인 핑계로 체포되거나



시리아정교회 신자 술레이만 칼릴(Suleiman Khalil). ©CSI

끔찍한 납치와 살해의 표적이 되고 있다. 과거 알아사드 정권 시절 지하디스트 등의 반군 공격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지역 민병대인 국민방위군(NDF)에서 복무했던 기독교인들이 주요 타깃으로 희생되고 있다. 하마주의 카프르보 출신 기독교인 파디 압도 알샤에르의 사례는 시리아 내 기독교인들이 처한 참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지난 7월 7일 자신의 일곱 살배기 어린 딸과 함께 무장 괴한들에게 짐승처럼 납치되었다. 천만다행으로 어린 딸은 얼마 뒤 풀려났지만 아버지인 알샤에르는 불과 이틀 뒤인 9일 온몸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지만 무참히 살해당한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여겨지는 기독교인들은 더욱 노골적인 표적이 되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시리아 당국이나 무장 세력은 기독교인 사업가들에게 종교적으로 금기시되는 행동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억지 누명을 씌워 다치는 대로 감옥에 끌고 가고 있다. 이들은 갇힌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막대한 석방금을 요구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야만적인 갈취 행위는 다마스쿠스 외곽의 자라마나, 흠스주의 기독교인 계곡이라 불리는 와디 알나사라 그리고 다마스쿠스 북쪽의 기독교 성지로 꼽히는 사이드나야 등지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며 기독교 공동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기독교인 다수 거주 지역인 사이드나야에서는 과거 2014년 반군의 거센 공격으로부터 마을을 지켜내는 데 헌신했던 네 명의 남성이 지난 6월 전격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7월 초까지 이들은 내무부 감옥에 갇혀 강도 높은 심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 최 기자

성경적 결혼관 표현한 핀란드 의원

기독교적 결혼관과 성윤리에 관한 견해를 표현했다가 핀란드에서 ‘혐오 발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핀란드 국회의원이 영국 정부에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핀란드 국회의원 출신 전 내무장관인 파이비 라사넨 의원은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자유언론 관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영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ETA)를 취소하면서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라사넨 의원을 지원하는 국제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맹(ADF) 인터내셔널 측은 영국 정부가 지난 6월 라사넨 의원의 ETA 신청을 승인했지만, 7월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라사넨 의원은 지난 3월 핀란드 대법원에서 2004년 교회 소책자에 결혼과 성에 관한 기독교적 견해를 담았다는 이유로 ‘혐오 발언’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의회의 ‘영국의 친구들(Friends of the United Kingdom)’ 모임에 소속된 라사넨 의원은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국 내무장관 사바나 마흐무드에게 입국 허가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라사넨 의원은 영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맹국인 유럽 국가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의 입국을 막은 것”이라며 “핀란드에서 기독교적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혐오 발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국가의 검열을 받는 중대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유럽인권재판소(ECHR)



파이비 라사넨 의원. ©ADF

제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국이 여행 허가를 거부한 것은 인권을 행사한 데 대한 처벌이라고 주장하며 영국 정부에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라사넨 의원과 함께 교회 소책자를 출판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루터교 주교 후하나 포흐올라도 영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영국 정부는 지난 6월 포흐올라 주교의 ETA 신청을 거부했다.

라사넨 의원은 이후 정식 비자를 신청하고 마흐무드 장관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회의가 열리기 전 답변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라사넨 의원과 포흐올라 주교, 루터재단 핀란드는 지난 3월 유죄 판결에 불복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사건을 제소했다. ADF 인터내셔널이 이들의 법적 대응을 맡고 있다.

ADF 인터내셔널의 로르칸 프라이스 변호사는 라사넨 의원에 대한 영국의 입국 금지가 그가 기독교 신앙을 평화적으로 표현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심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 606-2345, (424) 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엔 09:00 오전 8시
3부예배 카사데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부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 386-2233

주일예배 1부: 8:30 am 주일 3부: 2:00 pm (영어) 찬
주일예배 2부: 11:00 am 새벽예배: 화-토 (6:00 am)
교육부서: 11:00 am 수요일예배: 7:00 pm

박병열 담임목사

미주평안교회

"온례로 걸아온 50년, 비전으로 걸아갈 NEXT 50년" (시 78:4)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1-2202 www.mijopeace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경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 5부예배 오후 3:30 비전센터
주일 6부예배 오후 5:30 비전센터
주일 7부예배 오후 7:30 비전센터
주일 8부예배 오후 9:30 비전센터
주일 9부예배 오후 11:30 비전센터
주일 10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 11부예배 오후 3:30 비전센터
주일 12부예배 오후 5:30 비전센터
주일 13부예배 오후 7:30 비전센터
주일 14부예배 오후 9:30 비전센터
주일 15부예배 오후 11:30 비전센터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 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청년부, 주일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 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청년부, 주일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평일 오전 5:30
수요심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 A, CA 90019
T. (323) 610-6989, www.woorigachurch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월-토)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일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일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매간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창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종교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반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동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들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성경인사예배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유치부, 만5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영아유치부, 만5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토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담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3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최원일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美 교회, 출석자 만족도는 높지만 ‘제자화 격차’ 여전



©Unsplash/Aaron Owens

미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 달에 한 번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가 발표한 '미국 성경 현황 2026(State of the Bible USA 2026)'에 따르면, 미국 교회의 현실은 낮은 참여율과 높은 교회 만족도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성서공회가 시카고 대학 산하 NORC와 공동으로 지난 1월 약 3주간 실시했으며, 성인 2,649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미국인 가운데 매주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은 25%에 그쳤다. 반면 교회 예배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대면과 온라인을 모두 포함해 37%에 달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서는 49%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간헐적으로라도 교회에 참석하는 미국인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약 6개월에 한 번’ 교회에 참석한다는 응답은 2024년 5%에서 올해 8%로 증가했다. 전혀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39%에서 37%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성서공회는 적어도 가끔씩 교회에 참석하는 미국인이 약 800만 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교단별 출석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복음주의 개신교인 가운데 약 3분의 2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참석했으며, 절반은 연구진이 정의한 ‘실천적 기독교인

(practising Christians)’에 해당했다.

‘실천적 기독교인’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참석하면서 신앙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사람을 의미한다. 흑인 개신교인 가운데 실천적 기독교인의 비율은 3분의 1로 그 뒤를 이었으며, 주류 개신교인(Mainline Protestant)은 14%에 그쳤다. 주류 개신교인의 65%와 로마 가톨릭 신자의 60%는 기독교 전통에 자신을 포함시키지만 교회 생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명목상 기독교인(nominal Christians)’으로 분류됐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기독교인 여성의 51%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참석한 반면 남성은 46%였다. 기독교인 남성의 54%는 한 달에 한 번도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10명 중 1명은 교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예배 참여도 여성에게서 더 높았다. 남성 교회 출석자의 약 20%가 전체 예배 참여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30%에 달했다.

세대별로는 X세대의 교회 출석률이 증가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참석하는 X세대 기독교인은 2024년 49%에서 올해 54%로 늘었다. 반면 젊은 세대의 교회 참여는 여전히 과제로 나타났다. 특히 Z세대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참석하는 비율이 2024년 46%에서 올해 42%로 감소해 전체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출석률이 하락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교회 경험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기자

소말리아 기독교 개종 여성 무차별 피습 흥기 짙어 중상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흥기 피습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8월 20일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5일 소말리아 남부 로위 주바 지역의 아프마도우 마을에서 소피아 이브라힘을 비롯한 기독교인 여성들이 성경 공부 모임 중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2022년 4월 기독교로 개종한 이브라힘은 8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로, 이날 공격으로 머리에 깊은 자상을 입고 გადა 출혈로 4시간 동안 의식을 잃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사건 당일 이브라힘과 다른 기독교인 어머니들은 한 가정집에 모여 기독교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다. 이때 아흐메드 후세인 등 4명의 무슬림 남성이 들이닥쳐 마을에서 기독교는 허용되지 않는다면 몽둥이로 이들을 구타했다. 이번 공격은 기독교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슬람으로 재개종한 파투마 오스만이라는 여성의 제보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들은 몽둥이 공격을 피해 각자의 집으로 달아났으나, 가해자들은 이브라힘을 집까지 추격했다. 가해자들은 집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브라힘에게 둔기와 소말리아 전통 장검인 판가를 휘둘렀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이웃 주민들에게 발견될 당시 이브라힘은 심각한 출혈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으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식을 회복한 이브라힘은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지난 19일 퇴원했으며, 가해자들의 추가 테러를 우려해 현재는 신원이



©ChatGPT

공개되지 않은 안전한 은신처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이번 흥기 피습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개종자로서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브라힘은 현지 매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기에 신앙을 저버릴 수 없으며, 앞으로도 복음을 계속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브라힘은 친자녀 8명과 자신이 맡아 기르는 5명 등 총 13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나,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면서 가족 전체가 극심한 생계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DI는 이번 사건이 소말리아 내에서 심화하고 있는 기독교 박해와 종교 탄압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소식통은 소말리아에서는 이슬람교만이 유일한 합법 종교로 인정받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겪는 폭행과 생명 위협을 당국에 신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도어즈가 발표한 2026년 세계 감시 목록에 따르면, 소말리아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살기 가장 어려운 국가 2위로 지정됐다.

다니엘 최 기자

美 목회자 82% “최근 5년간 목회 그만둘 생각” 교회 문화가 주 원인

미국 목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최근 5년간 목회를 그만두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회 문화와 리더십, 교역자 간 관계 등이 목회자들의 사역 지속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목회자이자 리더십 코치인 제러드 파백(Jared Fabac)의 의뢰로 실시된 ‘컬처 리서렉션 인덱스(Culture Resurrection Index·CRII)’ 조사에서 미국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교회 리더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지난 5년 동안 목회를 그만두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목회 사임을 고려한 응답자 가운데 74%는 가장 큰 원인으로 ‘교회 문화’를 꼽았다. 교회 내 리더십 문제와 직원 및 교역자 간 관계, 조직 문화의 어려움 등이 목회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계속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목회자들의 리더십 교육 부족도 문제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3%는 어려운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77%는 교회 지도자가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확산시키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파백 목사는 목회자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복잡한 조직 및 대인관계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회자들이 신앙을 잃었기 때문에 사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갈등이 있는 교역자들을 이끌고 어려운 회의를 진행하며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학교는 설교를 가르치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은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성경박물관, 요르단 성서 유산 조명하는 특별전 개최



2027년 미국 워싱턴 D.C. 성경박물관(Museum of the Bible)에서 열리는 ‘요르단: 기독교의 여명(Jordan: Dawn of Christianity)’ 전시에 소개될 기독교 유산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Jordanian Embassy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성경박물관이 요르단의 숨겨진 성서적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규모 국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8월 22일 보도했다. 성경박물관은 지난 1일 요르단 관광유물부와 현대 요르단 영토 내 주요 기독교 성경 유적지를 조명하는 ‘요르단 기독교의 새벽(Jordan: Dawn of Christianity)’ 전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디나 카와르 주미 요르단 대사과 성경박물관의 카를로스 캄포 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참석해 서명하며 양국의 굳건한 문화적 연대를 과시했다. 캄포 회장은 현지 기독교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요르단 유적지의 중요성과 성경 이야기의 연결고리를 대중과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로 하여금 요르단을 단순한 중동 국가가 아닌 깊은 역사와 영적 의미가 충만한 국가로 새롭게 인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미 요르단 대사관에 따르면 이 전시는 과거 바티칸과 이탈리아 아시시에서도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기독교 태동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요르단의 기독교 역사를 총괄하게 추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 교계에서 목회자의 번아웃과 갈등, 정신적·신체적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발표된 바나그룹(Barna Group) 조사에서는 미국 개신교 담임목회자의 52%가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영역으로 꼽았다.

목회자들의 직업 만족도 역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목회자의 피로감은 다소 개선됐지만, 자신의 소명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목회자의 비율은 2015년 72%에서 2026년 초 52%로 감소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가 지난해 전직 개신교 목회자 7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도 조사에서도 교회 내 갈등과 번아웃이 목회를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8%는 교회 내 갈등을, 16%는 번아웃을 사임 이유로 꼽았다. 가장 많은 40%는 ‘소명의 변화’를 이유로 들었다.

영국 성공회에서도 목회자들의 번아웃과 고립, 낮은 사기, 재정적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성공회의 장기 연구인 ‘리빙 미니스트리(Living Ministry)’ 조사에 따르면 최근 조사에서 성공회 성직자의 40%가 사역 과정에서 고립감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약 30%는 우울증 가능성을 나타내는 증상을 보였다.

행정 업무와 교구 재정, 교회 건물 관리 등 목회자가 감당해야 하는 다양한 책임이 번아웃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상당수 성직자는 자신의 사역에서 여전히 강한 소명 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2%가 자신의 목회를 통해 소명을 실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경 기자

적하는 희귀 고고학 유물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를 통해 집중적으로 소개될 주요 유적지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터로 알려진 요르단 강 너머 베다니를 비롯해 세례 요한과 연관된 마케루스 요새, 움 카이스, 리함의 고대 교회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세계 최초의 목적형 교회로 꼽히는 아카바 교회, 신비로운 페트라 교회군, 유네스코 유산인 움 에르 라사스, 모자이크 유산으로 유명한 마다바 지역 등 기독교 성지순례의 핵심 장소들이 총망라된다.

특히 성경 속 사건들과 관련된 경로를 안내하던 역사적 순례 가이드인 마다바 지도의 정교한 복제품이 핵심 전시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캄포 회장은 마다바 지도가 성경 속 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훌륭한 로드맵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하며,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이 향후 요르단 마다바의 성 조지 교회를 직접 방문해 원본 지도를 확인하고 다른 유적지들까지 탐험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성경박물관은 고고학 유물 전시 외에도 요르단의 유구한 역사와 기독교 성지순례 유적지 관리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박물관 측은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한 전시 파트너십을 넘어 양국 간의 문화적 역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다니엘 최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미지학자)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박종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대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 1부 8:10am
주일 2부 9:30am (만 교역부 예배)
주일 3부 11:20am (만 교역부 예배)
한여름 3부 11:30pm / 동여름 2부 2pm / 수요경배(화-토) 7:30pm
새벽예배 평일 월-금 5:30am, (토) 6am
EM(DSCP) 1부 9:30am / 2부 11:00a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 교회를 교회되게 ·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www.dongshi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교등부 (Youth) 오전 10:30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주일예배 1부: 8:00 am 새벽예배: 5:30am(화-금)
주일예배 2부: 11:00 am 유아,유치부: 11:00am(주일)
토요 새벽: 6:30am(토) 초,중,고등부: 11:00am(주일)

이종천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사람으로 하나님과 은혜로 세워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213) 999-9298 www.Nachimban.org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천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고 내 길에 빛이나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교등부(이과제)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제)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주중새벽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am.com

주일 1부 8:00AM 중교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노인일예배 오후 7:30 한여름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요일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 3.3.3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10:30 목요 TEE 양육 Zoom 오후 7: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u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목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상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즐거운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커뮤니티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서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ojeo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세션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학 생 모 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Collision Center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송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배에는 숙변제거와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 마음이 편해지는 장례플랜

장례 플랜 (화장, 매장)

Worldwide FAMILY INC.

Representing Family Owned & Operated Funeral Homes

1 물가 상승 대비 장례 비용 고정

2 사망 시 신속한 장례 절차 진행

3 원하는 화장 또는 매장 방식 설정

4 부담 없는 장례 요금 할부 계획

5 만성 질환, 정부 혜택 수혜자도 가입

이한주 장례전문 상담사 CA Lic. #0K41143 213.321.8787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경과 신학 연구를 위한 프롬프트’ 세미나

미주복음방송(GBC, 사장 이영선)이 9월 21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국 공개홀에서 『성경과 신학 연구를 위한 프롬프트』 출판 설명회를 개최한다.

저자 김병학 박사(라하브라 주님의교회 담임, (The Lord’s Community Church))를 초청해 진행되는 이번 자리는 ‘AI 시대에 성경과 신학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사전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저자는 AI를 통한 설교 준비가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경 앞에서 질문하는 법에 대한 고찰을 나눌 예정이다.

저자는 “AI는 대필자가 아니라 산파다”라고 정리한다. 산파가 아이를 대신 낳아 주지 않듯, 말씀 앞에서 답을 찾아가는 자리는 끝까지 나 자신의 몫이라고 설명한다.

김병학 박사는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CPU), 그레이스미션 대학교(GMU)에서 목회자와 신학생을 훈련해 왔다.

설명회는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곧 목회 현장에서 만난 세 가지 위기와 출판 과정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책 속에 담긴 18가지 프롬프트 형식과 하브루타 4단계 질문법을 함께 살펴본다.

마지막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 한 본문을 놓고 질문을 바꾸면 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연하게 된다.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도 마련된다.

목회자·전도사에게는 주일 설교 준비 과정에 AI를 활용법에 대해, 신학생과 신학교 교수에게는 과

질문이 깊어야 말씀이 깊어집니다

AI시대, 성경과 신학을 다시 읽는 법

성경과 신학 연구를 위한 프롬프트

01 시대에 성경을 몰랐더니 답은 그럴듯한데, 왜 설교단에서는 힘이 없을까?

02 누가복음 15장 한 본문으로 보여 드리는, 질문을 바꾸면 달라지는 다섯 단계

03 시를 한 번도 써 보지 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기개가 아니라 질문을 배우는 시간

2026년 9월 21일(월) 오전 9:30 ~ 11:30

미주복음방송국 공개홀

2641 W.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

목회자, 신학생, 성경공부 인도자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

무료 (사전 등록)

714-484-1190

김병학 박사

Clayton Kim

“기독교의 미래 연구와 실천을 위한 프롬프트” 저자

신학도목

제와 논문에서 AI가 지어낸 인용을 걸러내는 점검법을 나눈다.

성경공부 인도자 및 소그룹 리더에게는 하브루타 질문법을 프롬프트로 바꿔, 일반적인 강의 형식의 모임이 아닌 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모임을 만드는 길에 대해서 나누게 된다.

설명회는 미주복음방송국 공개홀(2641 W.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에서 열리며, 참가 신청은 포스터의 QR코드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송정명 목사, 50년 목회 여정 나눈다

월드웨어 USA 바나바 사역팀이 준비한 목회자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와의 만남’이 오는 9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열린다.

9월의 멘토로 초청된 송정명 목사는 ‘50년 사역여정, 감사와 아쉬움—내가 50대 목회자로 돌아간

다면?’을 주제로 지난 목회 사역을 돌아보며 후배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게 된다.

동양선교회 부목사를 거쳐, 미주 평안교회에서 24년간 섬긴 송 목사는 현재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로 섬기며 LA 교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미주 평안교회에서 담임으로 있던 당시 주일 예배와 마라톤이 겹쳐 한인 교인들의 주일예배 참석에 어려움을 겪을 때, 마라톤 날짜 변경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주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 LA 621 S. Virgil Ave., #455, LA, CA 90005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 1면 기사 <메타 소송 합의>에 이어서

이번 합의에는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하루 총 이용시간 2시간 제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야간 이용 제한 ▲연령 확인 및 제한 강화 ▲수업 시간 중 푸시 알림 비활성화 등이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이번 합의는 소셜미디어를 아이들에게 덜 위험하게 만들고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메타는 자사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변화를 단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수개월 내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멕시코, 워싱턴 D.C.가 제기한 4억5,930만 달러 규모의 개인 정보 침해 소송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2016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약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정치 광고 등에 활용한 사건이다.

재판이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메타는 이번 합의에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메타는 그동안 “소셜미디어 중독”이 공식적

으로 인정된 정신과적 진단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소셜미디어 대기업 바이트댄스와 함께 1996년 통신법 제230조에 따른 면책 조항을 근거로 항소해 왔다. 제230조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주 정부들은 콘텐츠에 대한 메타의 책임보다는 플랫폼 설계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합의는 2021년 미국의 거의 모든 주 법무장관들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조사하기로 하면서 시작된 법적 대응의 결과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213-798-2200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소금의 영성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오래전에 K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차마고도》를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차마고도는 차와 말을 교환하던 험준한 교역로입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를 보면서 제 마음에 깊이 남은 것은 차나 말보다 소금이었습니 다. 티베트 고원에서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품이었고, 곡식과 생활필수품을 얻을 수 있는 화폐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소금을 등에 지고 수백 킬로미터의 위험한 절벽길을 걸었습니다. 소금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양식이었고, 생명을 이어 주는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 5:13). 우리는 소금을 통해 깊은 영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소금의 영성은 자신을 감추는 영성입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면 그 모습을 감춥니다. 자신을 녹여 음식 속으로 스며듭니다.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소

금이 들어간 음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소금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소금은 녹아 사라짐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완성합니다. 예수님은 소금처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참된 섬김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스며듭니다. 사랑은 소리보다 깊고, 희생은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둘째, 소금의 영성은 다른 사람의 맛을 살려 주는 영성입니다. 소금은 자기 맛을 자랑하기 위해 음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재료가 가진 고유한 맛을 살려 주기 위해 들어갑니다. 쓴맛을 줄이고 단맛을 돋우며, 음식 전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만 빛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닌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가능성을 복돋우며, 장점을 칭찬해 줍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자기 모습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고유한 재능을 발견하고 꽃피우도록 도와줍니다. 소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음식의 맛을 망칩니다. 지나친 간섭도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충고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

운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지킬 줄 압니다. 소금의 영성은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셋째, 소금의 영성은 부패를 막는 영성입니다. 냉장 시설이 없던 시대에 소금은 고기

자신을 감추는 소금
다른 사람의 맛을 살리는 소금

와 음식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티베트 고원에서도 소금은 긴 겨울 동안 음식이 썩지 않도록 지켜 주는 귀한 보존제였습니다. 세상에는 부패를 촉진하는 힘이 있습니다. 거짓과 탐욕, 미움과 분열, 음란과 폭력이 사람의 영혼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음식 밖에 머물면서 음식의 부패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음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 속에서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만 구할 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소금은 적은 양으로도 부패를 막습니다. 우리가 세상 전체를 한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부패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습니다.

넷째, 소금의 영성은 생명을 보존하는 영성입니다. 소금은 인간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체내 수분의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과 근육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습니다. 티베트 고원에서 소금은 사람뿐 아니라 야크와 양 같은 가축의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싸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금의 영성은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영성입니다. 소금 한 알은 너무 작아 그 맛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한데 모여 음식 속에 녹아들면 음식 전체의 맛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일 때 세상에 거룩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소금은 혼자 빛나지 않습니다. 소금은 함께 녹아들어 맛을 냅니다. 건강한 교회는 누가 더 크고 중요한지를 놓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세상을 살립니다.

오늘도 이름 없이 녹아드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고, 상처 입은 생명을 치유하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복음의 깊고 아름다운 맛을 경험하게 되기를 빕니다.

진유철 칼럼

영적갈망으로 시련을 견디는 믿음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한 마디로 마귀는 유혹 밖에 못합니다. 결국 행동하는 행함은 내가 욕심과 두려움으로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원수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릴 때 선악과를 따서 주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미혹의 말로 유혹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여 따먹은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 역사할 때도 생각에 역사했습니다. (요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다음 가룟 유다가 욕심으로 선택하므로 은30냥에 예수님을 파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떡을 만들어 입에 넣어주고 먹게 하지 않았습니 다. 행동으로 하지 않고 단지 생각과 말로만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선택하므로 유혹에 지는 행동을 하지 않고 이기셨습니다. 원수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유혹일 뿐 결국 행동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디어와 인터넷으로 엄청난 정보와 유혹이 생각 속에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등지거나 대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눌려서 힘들어하고 마음의 질병에 빠져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기는 길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약1:12) 관한 것만 찾지 말고 시련을 견디어 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나이 많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한 남자를 유혹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조카 악마 윈우드에 게 쓴 31통의 편지를 모은 내용입니다. 크리스천을 대적할 때 고난을 수단으로 쓰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오히려 회심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혹과 형통이란 방법을 쓰라고 조언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최소 10년 지

내며 영적으로 심상했는데, 왕궁의 형통을 누리다가, 하루 밤에 죄와 유혹에 무너졌

유혹은 마귀가, 선택은 내가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라

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육신이 편해지고 세상 갈망을 채우려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시련을 견디어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제련소에서 섭씨 1,000도가 넘는 이글거리는 용광로 불길로 금 안의 불순물과 찌꺼기를 태워 없앱니다. 용광로 안에 금 표면에 얼굴이 반사되어 비칠 때까지 제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한국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저와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이 비취지는 마음과 생각이 될 때까지 시련을 견디어내는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렘!

202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한국부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정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학(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 aarahell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ea@itsla.edu



목회자 내 집 마련 세미나 2026



"목회자는 정말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의 삶은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주택 구입은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대출은 가능한지,
정부와 각 기관의 보조금은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에서는 찾기 어려운
목회자의 현실에 맞는 내 집 마련 전략을
한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도, 이미 고민 중인 분도,
막연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일시: 2026년 9월 28일(월)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등록: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문의: 기독교일보 (213- 434-1170)



주최: 샬롬센터 (shalomcenter.net) / 특별후원: 기독교일보

강사: 이지락 장로 (샬롬센터 대표)

샬롬센터는 미국 남가주(LA 및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한인 무주택자를 위해 연방정부 공인 주택교육,
1대1 구입 상담, 그리고 사·카운티·주정부의 다운페이 보조금(Grant)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내집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새라 김 칼럼

미성년자를 둘러싼 성전환 의료의 불편한 진실



새라 김 대표
TVNEXT.org

미국 보건부-“하얀 가운을 입은 늑대들”이라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허위 보험 코딩을 폭로하는 보고서, 그러나 거꾸로 가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침울한 영적 상황

지난주 (8/13/2026), 미국 보건복지부는 “Wolves in White Coats-흰 가운을 입은 늑대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의료 기관들이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 비용을 청구할 때, 모호한 진단 코드나 조기 사춘기 관련 코드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밝혀냈는데, 보고서는 수백 곳의 병원과 클리닉을 명시하며 법무부에 강력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리포트에 나온 클리닉들 중 최소 9곳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나온 AB1876이 바로 “Wolves in White Coats”의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여러 공청회를 통과하여 이제 공청회가 몇 개 남지 않았기에 반드시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와 ACTION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서 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HHS) 보고서의 주요 내용
미국 보건복지부는 10년간의 청구 데이터만 우선 검토했는데도, 성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코드로 청구된 사춘기 지연제(Puberty Blocker)와 관련된 내용들을 수도룩히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사춘기 차단제”란 10대 미성년자들이 공립학교의 매우 왜곡된 보건 및 성교육(Health & Sex) 결과로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을 다른 성별로 바꾸기 위해 받는 호르몬 시술들입니다. 미성년 차세대들에게는 평생을 후회할 만큼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위험한 호르몬 치료 및 시술들입니다.

먼저, 병원이 보험사에 청구할 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진단 코드’를 제출하며, 이 코드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이 보고서의 주요 발견 사항에는 두 가지 진단 코드가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 코드는 본질적으로 환자가 비특이적 호르몬 장애를 앓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9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청구된 사춘기 지연제 관련 코드 청구액이 4,000만 달러(\$40 million)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오와 대학교가 해당 코드를 부여받은 환자 1,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호르몬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는 71명(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코드에는 사춘기 지연제 사용이 허용되는데, 문제는 지나치게 일찍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리포트입니다. 사춘기가 여아의 경우 8세, 남아의 경우 9세까지도 해당되며, 병원들은 이 코드를 사용하여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약 1,100만 달러를 청구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보스턴 어린이 병원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진단을 받은 11세 아동이 거의 없었지만, 2022년에는 50명이나 사춘기 차단제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기여한 윤리 및 공공정책 센터(Ethics and Public Policy Center)의 정신과 의사인 아론 케리아티(Aaron Kheriaty) 박사는 “가족들은 되돌릴 수 없는 (생물학적) 성별 거부’라는 시술을 의사들로부터 매우 급속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경로로 내몰렸다”고 밝히며 “의료 제 공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거의 결정했다고 본다. 그와 함께, 조기 사춘기 진단 코드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말하며 “1) 이러한 허위 진단 코드는 보험 환금을 받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2)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거부 시술을 금지하는 주법이 있는 주에서는 주법을 우회하는 데에도 실제로 사용되어 왔다.” 그는 총 “4,700만 달러(\$47 million) 이상의 부정 청구”가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신뢰하던 어른들에게 배신당한 아이들
1. 클레멘타인 브린
21세의 UCLA 학생 클레멘타인 브린은 8학년 때, 부모님이 의사로부터 “살아있는 아들을 가질 것인가, 죽은 딸을 가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녀는 12세에 로스앤젤레스 어린이 병원에서 사춘기 지연제를 받게 되고, 13세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14세에 양측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끊임없는 관절통과 골밀도 감소도 겪고 있어요. 의사들은 저에게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혼돈스러웠을 뿐,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찾던 게 아니었어요.”
“학교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하며, 그 상담사가 저에게 ‘넌 성 정체성 불일치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며 이 일이 시작됐죠.” (다음에 계속)

강태광 칼럼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요즘 월요일이 행복하다.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날이다.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가슴 뛰는 행복이다.

학기를 시작하며 나 자신과 세 가지를 약속했다. 이 세 개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며 신학교 강의를 위해 출발할 때마다 기도하며 이 세 가지를 언급한다. 그 세 가지 약속은 목사로 살아온 40여 년 세월의 결산이다.

나 자신과 굳게 약속한 세 가지는 단순히

다. 첫째는 성경을 교육하리라! 둘째는 사역 준비를 돕는 강의를 하자, 그리고 셋째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자주하자라는 결심이었다. 나름대로 비장하게 결심했다. 첫째와 둘째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다. 성경의 진리를 나누며, 신학생의 현재와 장래의 사역 돕기를 도모한다. 부족하지만 덕분에 보람찬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셋째 약속은 아직 실천하지 못했다. 아직 어려운 질문을 받지 못했다. 이유는 많다. 우선 질문할 틈을 주지 않고 강의를 급하게 진행하기 때문인 듯하다. 나아가 주로 성경을 통해 신학적 논리를 세우고 사역준비를 위한 강의를 진행하니 질문거리도 없는지 모른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용기가 없어서 질문을 막고 있는지도 모른다.

모르긴 해도 강의실에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곧 받게 될 것이다. 내심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린다. 조금만 미심쩍거나 분명한 대답을 모르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려고 이 대답을 연습하고 있다. 이

번 학기 개인 목표는 정말 잘 모르는 사항을 질문받고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목사로 살면서 거의 쉬지 않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다. 성경 공부 시간이니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도 많이 받았고, 답을 잘 모르는 질문도 있었다. 부끄럽게도 아는 척하기도 했고 얼버무리기도 했다. 나아가 목사로 살면서 ‘아는 척’했던 날도 많고, 주변에 아는 척하는 분들을 보며 실소를 머금었던 때도 적지 않다.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운 일이다.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교목실과 종교부를 통해서 학교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과 가까이 지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가깝게 지내지 않았지만, 멋진 분으로 인정했던 선생님이 조병훈 선생님이다. 조병훈 선생님은 실력이 뛰어나신 국어 선생님이셨다. 우리 질문을 명쾌하게 풀어 주셔서 우리가 좋아했다.

그런데 그 조병훈 선생님께서는 우리 질

문에 자주 “자신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다. 멋졌다. ‘모르겠다’라는 말이 그렇게 멋진 말인 줄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목사로 살면서 알팍한 지식을 쌓는다. 모든 일에 관여하며 모든 일을 아는 척하지만 따지고 보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심지어 전문가가 되어야 할 성경도 잘 모른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성경도 모르면서 사회를 말하고, 정치를 말하고,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이러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은 제가 잘 못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그리고 많이 하려고 한다.

조롱조롱 빛나는 눈빛으로 말씀과 신학을 배우고 말씀으로 장래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후배님(?)들이 ‘잘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용기와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맛을 품고 선지 동산을 떠나기를 바란다.

그들은 나처럼 못난 모습으로 얼버무리거나 아는 척하지 않고, 당당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멋지고 지혜로운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TV 기독교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 / chdailya@gmail.com

*미주기독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You

Tube

한인동산장로교회
이홍길 목사 (2)

“목회의 본질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

“목회자는 떠나도 교회는 남아... 다음 목회자에게 건강하게 이어주고 싶어”

[이전호에 이어서]
- ‘소통’ 도 올해 중요한 과제로 꼽으셨습니다.

오래된 교회이다 보니 의사소통이 다소 수직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성도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도 소통이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역자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설명을 잘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위임예배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한 행사도 학부모 간담회였습니다. 영아부부터 유스까지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교회가 자녀들과 젊은 세대를 위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30분 정도면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의 두 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 시간이 끝난 뒤 감사하게도 젊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우리도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 해보자”는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약 10가정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분들이 미디어 선교팀을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새벽기도 설교와 주일예배 설교 등을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쇼츠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에 많이 유입되면서 기존 어르신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세대만을 위한 목회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1년 동안 한인동산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도분들, 특별히 어르신들이 교회를 위해 삶을 드리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민교회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문제가 있었겠지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갈라지기

보다 참고 기다리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3대 담임목사이입니다. 두 분의 목사님께서서 각각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뒤 제가 3대 목사로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성도분들에게 교회를 지키고 문제를 풀어가는 힘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바뀌었을 때도 어르신들의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전과 같이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성가도 부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찬양곡이 정해지면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집에서 듣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 때 잘 모르시는 찬양인데도 따라 부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가는 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가 많아지는 것도 힘이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것도 저는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한인동산장로교회가 웨체스터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원하십니까.

저희 교회가 위치한 웨체스터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위치적으로도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코네티컷이나 뉴욕 북쪽에서도 오시고 뉴저지나 퀸즈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치가 오히려 복음의 영향력이 주변으로 흩어져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는데, 저희 교회도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동산교회 때문에 이 웨체스터 지역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선교회에도 지역의 필요를 찾아보자는 숙제를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에 노숙자 문제가 있다면 이 지역에도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고 생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선교회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여러 선교회가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주는 한 선교회



한인동산장로교회 담임 이홍길 목사 ©기독교일보

가 하고 둘째 주에는 다른 선교회가 하는 식으로 협력하면 교회가 지속적으로 지역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처럼 저희에게는 용커스와 웨체스터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즐겁게 교제하는데 머물지 않고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지역을 돕는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결돼 조용히 섬길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한인동산장로교회는 해외선교를 많이 해온 교회이기도 합니다. 선교 방향에는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가 한때 약 130곳을 후원했고 지난해 선교부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 올해는 약 90곳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30곳이든 90곳이든 그렇게 많은 곳을 책임 있게 선교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할 것이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책임 있게 선교하는 교회로 도약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도선교부에 숙제를 드렸습니다. 현재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기관에 모두 연락해 실제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장기적인 선교 정책과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후원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방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일정한 원칙이나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

로는 교회가 집중할 수 있는 선교 방향과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책임 있게 협력했으면 합니다.

저희 교회는 파송선교사님은 없고 모두 협력선교사님 형태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음이 더욱 필요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협력하고, 단기선교도 그런 지역을 우선순위에 놓으면서 몇 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고민했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지역을 해야 합니다”라고 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재정의 약 20%를 선교에 사용할 정도로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한인동산장로교회는 이 부분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까지는 현재 선교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내년부터 좀 더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선교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 메릴랜드 목회에서도 젊은 세대를 많이 섬기셨는데, 그 경험이 지금의 목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메릴랜드에서의 목회는 저에게 이민교회를 좀 더 깊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존스홉킨스대학교와 가까워서 대학생과 청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고 학생들을 교회로 데려와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했습니다.

청년들은 처음부터 매주 소그룹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주일 설교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직접 질문과 교재를 만들어 리더분들에게 가이드를 드리고, 리더분들이 다시 소그룹을 인도했습니다. 질문 몇 가지를 가지고도 한 시간 정도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청년들을 섬기다 보니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한인동산장로교회에서도 청년들이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부에서 성경해석학 세미나의 포스터와 간식 등을 직접 준비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생명사역 컨퍼런스에서는 양육뿐 아니라 전도에 대해서도 도전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전도축제를 경험했는데 당시에는 그것도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생명사역 컨퍼런스에서 대구동신교회 원로 권성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뜨끔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전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축제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돌아와서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성도분들에게 제가 부끄러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게 됐다면 목회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교회가 불려야 할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가주 삼성 통운(주)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일라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세속적 문화와 기대 부응하지 않는 목회자의 정체성

‘불필요하고 무력한 목회자’ 야말로, 참된 목회자…



불필요한 목회자

유진 피터슨, 마르바 던
차성구 역 | 좋은씨앗 | 428쪽

오늘날 목회자의 정체성과 사역을 새롭게 성경과 복음의 토대 위에서 재정립하도록 돕는 신학적 선언이다

유진 피터슨과 마르바 던은 목회자가 세상적 기준으로는 ‘불필요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복음 앞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역설하면서, 성공주의와 관리주의로 흐르는 한국 교회와 목회 현실에 깊은 도전을 건넨다

유진 피터슨과 마르바 던이 함께 저술한 『불필요한 목회자』는, 목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목회자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심도 있게 성찰하는 책이다.

이 책은 목회가 단순히 교회 성장이나 행정적 관리의 역할로 축소되는 현대적 경향에 대한 깊은 반성과 더불어, 목회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절실한 외침을 담고 있다.

저자들은 목회자를 세상의 기능적 요구와 효율의 논리 속에 가두려는 시대적 흐름에 저항하면서, 오히려 목회자가 ‘불필요하다’는 평가 속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역설적 제목은 곧 목회의 본질이 세상의 필요나 유용성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선언이다.

이 책은 현대 사회가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수많은 요구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사회는 목회자를 유능한 경영자, 재정 전문가, 상담가, 조직가, 심지어 정치적 지도자로서까지 요구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러한 요구가 목회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고 말한다.

목회자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성도들의 삶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도록 돕는 존재이다. 따라서 목회자가 세상의 유용성에 매달릴수록 오히려 본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결국 교회가 세속적 효율의 논리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단순히 외부적 요인에서 찾으려는 관점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이 본질을 상실한 데서 기인한 것임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저자들이 말하는 ‘불필요한 목회자’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쓸모없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존재이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목회자의 참된 정체성이 드러난다.

목회자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며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라는 교회의 중심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는 목회자가 단순히 유능한 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증언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 저자들은 목회자의 역할을 신학적으로 재규정하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반드시 불필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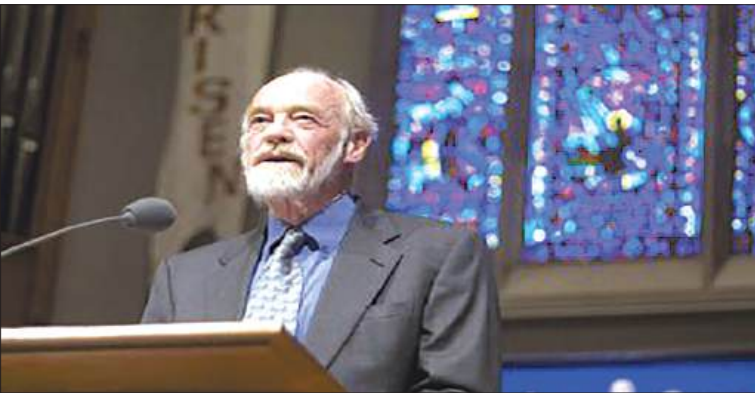
책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피터슨과 던은 목회자가 해야 할 핵심 세 가지 직무에 주목한다. 그것은 말씀 선포, 예배 인도, 영적 공동체 형성이다. 말씀 선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재구성하도록 돕는 사건이다. 예배 인도는 교회가 세상 가치와 다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중심적 행위이다. 영적 공동체 형성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친밀감을 넘어, 성도들이 서로를 말씀 안에서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 세 가지 직무는 목회자의 정체성과 직결되며, 다른 모든 기능적 요구들보다 우선되는 본질적 요소들이다. 저자들은 특히 목회자가 세상적 성공과 유용성의 논리에 휘둘릴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지적한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몰두하거나 교회를 기업처럼 운영하려 할 때,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의 증인 공동체가 아니라 세속적 조직으로 전락한다. 이때 목회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관리자나 기술자로 변질된다.

이러한 현실은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을 잘 드러내며, 저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목회자의 ‘불필요함’을 강조한다. 목회자가 불필요해야만, 교회는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다.

『불필요한 목회자』는 단지 목회자 개인의 정체성 회복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책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세상의 효율주의와 유용성의 논리에서 벗어나도록 촉구한다.

목회자가 본질을 회복할 때,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경쟁하는 또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



▲유진 피터슨 목사. ©위키

라의 증언자이자 대안적 공동체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 책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도전을 던진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성공 모델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책은 목회자와 교회 모두에게 본질 회복을 요구하는 강력한 선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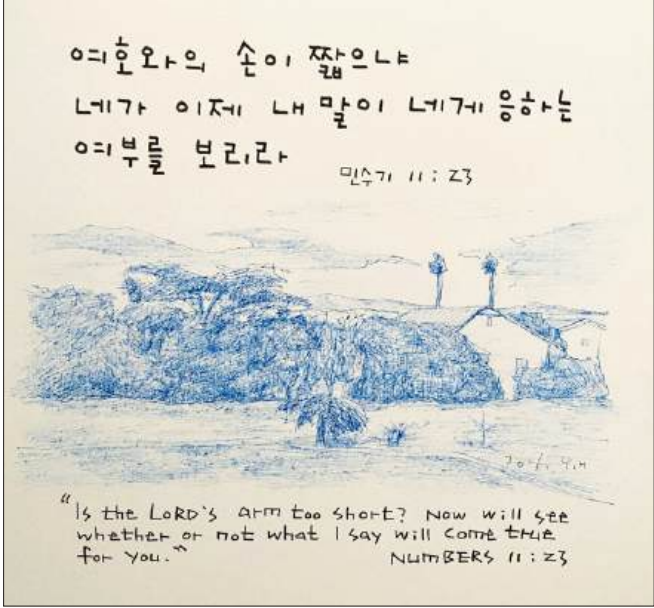
책의 서술 방식은 학문적 논의와 동시에 목회적 현실 감각을 결합한다. 피터슨과 던은 탁월한 신학자인 동시에 깊은 목회적 경험을 가진 저자들로서, 이론과 실재를 긴밀히 연결한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히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오늘

날 교회와 목회자들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대답을 제공한다. 저자들은 목회자의 현실적 고민에 공감하면서도, 그 고민을 넘어 더 본질적 자리로 나아가도록 독자를 이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신학적 논문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영적 성찰을 이끄는 안내서이다.

『불필요한 목회자』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동시에 날카로운 도전을 준다. 목회자는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종종 무력감이나 실패감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저자들은 오히려 그 ‘무력감’이 목회자의 참된 자리임을 강조한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龍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026
NICHE
BEST
SCHOOLS

TRUSTED SCHOOL IN TOWN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뒤러 어머니의 초상

진실함으로 빚어낸, ‘부서진 아름다움(Broken Beauty)’

명한 눈과 주름, 야윈 모습
노화 징후 고스란히 드러내
존재 근본적 한계 직시시켜
뒤러 초상화중 가장 감동적
미와 진리, 밀접하게 연관돼
사랑 통한 구속적 美의 가치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는 생애 전반에 걸쳐 부모의 초상화를 남긴 적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어머니 바바라 홀퍼(Barbara Holper, 1451경 - 1514)를 포착한 63세의 목탄 습작은 인간의 실존적 깊이를 자아낸다.

바바라는 금세공 거장 히에로니무스 홀퍼(Hieronymus Holper)의 딸이었으며, 뒤러의 부친은 스승인 히에로니무스 홀퍼 밑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며 두터운 신뢰를 쌓았다. 이후 바바라가 성인이 되자 홀퍼는 당시 40세였던 제자에게 딸을 출가시켰다.

현재 베를린 쿠퍼슈티카비네트(Kupferstichkabinett)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 ‘63세의 화가의 어머니 초상’은 1514년 3월에 제작됐다. 바바라 홀퍼가 세상을 떠나기 단 두 달 전에 완성된 것으로, 노년의 고통과 신체적 쇠락을 직시한

사실주의적 필치가 돋보인다.

동시에 이 드로잉은 아들이 어머니를 응시하는 애절한 시선을 담고 있는데, 존 월포드(John Walford)는 이를 두고 “추하지만 사랑받는 대상이 그 사랑으로 인해 아름다워졌다”고 평가했다.

뒤러의 회고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1504년부터 아들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그러나 1513년경부터 건강이 악화돼 거동조차 불가능해졌으며, 투병 중인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들의 고통은 형언하기 어려우리만치 깊었다. 뒤러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경건한 어머니는 열여덟 자녀를 낳고 기르셨다. 자주 흑사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심하고 이상한 질병을 앓으셨고, 극심한 가난과 멸시, 조롱, 공포, 그리고 온갖 역경을 견뎌내셨다. 그러나 어머니는 원한을 품지 않으셨다. 죽음을 몹시 두려워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렵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으시면서도 성수를 달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보신 것 같았다. 그 직후 어머니의 눈이 감겼다. 나는 죽음이 어머니의

심장을 두 번 크게 찌르는 모습과 어머니가 입과 눈을 감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았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나 슬퍼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자비롭게 여기시기를(Sturge Moore, Albert Dürer, Kessinger Publishing, 2004, 71쪽).”

작품 오른쪽 상단에는 ‘1514년, 알브레히트 뒤러의 어머니, 63세 때의 모습’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고, 그 아래 작은 글씨에는 ‘그녀는 1514년 성령강림주일(5월 16일) 전 화요일, 해 질 녘 약 두 시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애도와 기록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목탄 드로잉은 뒤러가 1490년경에 그린 어머니의 초기 초상화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당시 39세였던 어머니는 뉘른베르크식 머리 스타일을 두른 우아한 측면 모습이었으나, 24년이 흐른 ‘63세의 화가의 어머니 초상’은 삶의 신산(辛酸)함이 그대로 묻어난다. 뒤러는 이 작품에서 집중적으로 사실적 묘사를 시도했다. 이러한 기법적 치밀함은 플랑드르를 여행했을 때 접한 얀 반 에이크(Jan van Eyck)와 로지예르 반 데르 웨이덴(Rogier van der Weyden)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연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작품에서 주목되는 점은 작가가 대상의 외형을 미화하거나 이상화하지 않고, 오히려 피부의 주름, 근육의 이완, 골격의 돌출 등 노화의 징후를 정직하게 드러낸 데 있다.

뒤러는 어머니를 엄정한 사실주의로 그려냈는데,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글로 남기지 않았다면 언뜻 보기에는 냉정하거나 잔인하게 보였을지 모른다. 그림에서 어머니의 얼굴은 야위었고, 피부는 깊게 주름지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며, 눈은 멍한 듯하고 얼굴은 죽음의 허공을 응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단순한 사실주의적 재현으로 단정짓는 것은 선부른 일이다. 뒤러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고, 그의 기록에서도 어머니의 고통과 죽음을 둘러싼 짙은 슬픔을 느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초상은 비정함이나 거리감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앞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애도와 성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대 유행하던 이상



▲알브레히트 뒤러, 63세 때 어머니의 초상(1514).

화나 미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미술사적 의미를 갖는다.

종교개혁적 관점에서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타락한 상태를 드러내는 시각적 진술로 풀이될 수 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손상되었고, 피조물로서 필연적인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뒤러의 이 초상은 바로 이러한 인간 조건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즉 이상화된 인간상이 아니라 쇠락과 죽음 아래 놓인 실제 인간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근본적 한계를 직시하게 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지나치게 냉혹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이 인물화는 노화와 질병이 인간의 육체에 미치는 영향을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여겨진다.

미술사학자 크리스타 그로싱어(Christa Grössinger)는 이 그림을 “뒤러의 초상화 중 가장 감동적인 작품”이라고 평한 것도 이런 흐름에서이다. 오늘날에는 뒤러가 어머니를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을 담았다고 해석한다.

한스 로크마커(Hans Rookmaaker)는 이상적인 미의 개념을 기피한 개신교적 예술관이 전통 미학과 다른 관점에서 미를 개념화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형식적 완벽

함을 경시하는 대신, “미와 진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우선시한 것이다(한스 로크마커,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 IVP, 1993, 291쪽). 예술가가 절망을 실제 절망으로, 추한 것을 추한 것으로 묘사한 진실함 속에 미가 존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것은 알브레히트 뒤러가 늙고 추한 자신의 어머니를 그린 드로잉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비록 외형은 쇠락했을지라도 대상을 향한 사랑의 시선이 머무는 그 진실함으로 인해 아름다움이 발현되는 것과 같다.

로크마커는 예술에서의 진리가 “정확한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통찰력이 풍부하고 충만함을 의미한다”며 “진리는 현실의 충만함, 그 범위와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우리가 작품을 우아함과 꾸밈의 정도로만 감상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뒤러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어머니를 미화 없이 보여주었다. 그는 미(美)에 대해, 달콤함이나 감상주의보다 진실함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무너짐을 안타까움과 공감의 눈길로 그린, 정직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알브레히트 뒤러, 39세 때 어머니의 초상, 47.2x35.7cm, 패널 위에 유채, 1490

“

사역자는 있는데,
사역할 차량이 없습니다”

†

당신의 차량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교회, 선교지, 캠퍼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됩니다.

사역자를 연결합니다
예배자,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의 자리로 연결합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힙니다
국내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믿음을 남깁니다
후대에 남겨질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됩니다.

당신의 차량기부가
복음의 여정이 됩니다!

납아도, 오래되어도 괜찮습니다.
운행이 어려워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선교지 이동

캠퍼스·청소년 사역

지역사회 섬김

교회 및 기관 사역

차량도네이션

문의 및 신청
☎ 213-434-1170
chdailya@gmail.com

주관: 기독교일보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2026 YNC
MISSION
EXPO
나성영락교회 선교대회

FROM HERE TO THE END

여기/에서 땅끝까지!

09/06(SUN) - 09/19(SAT), 나성영락교회

주강사

9
(WED)



김바나바 목사
원조한인교회 담임

10
(THU)



김한요 목사
배달교회 담임

11
(FRI)



박은성 목사
나성영락교회 담임

특강강사



이상훈 교수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총장



김의진 교수
AEU 마성대학교
상담학 교수



이세영 교수
CPU AI 설교연구소장
및 미주복음방송 부사장

WEEK 1.

SUN(9/6)

환영·개회
Welcome
Opening

MON(9/7)

연합
Unity

TUE(9/8)

교제
Fellowship

WED(9/9)

열정
Passion

THU(9/10)

회복
Restoration

FRI(9/11)

결단
Commitment

SAT(9/12)

위로
Comfort

SUN(9/13)

비전·파송
Vision
Commissioning

WEEK 2.

09/14(MON) - 09/19(SAT) 친교·안식
Recovery